

세계적 안무가 길키슨, 보아 점찍었다



오늘 서울 공연 초대 미팅

아시아의 '댄싱 퀸' 보아가 스포츠댄스 공연 '번 더 플로어(Burn the Floor)'를 안무한 세계적 안무가 제이슨 길키슨(Jason Gilkison)과 만난다. 보아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의 첫날 무대를 관람한 뒤 길키슨과 미팅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보아의 춤 실력을 눈여겨 본 길키슨이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초청 의사를 전달해 성사됐다.

2004년 일본에서의 '번 더 플로어' 공연 때 호텔 TV로 보아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길키슨은 최근 대만 공연 때 TV를 통해 보아의 춤을 다시 보고 감명을 받아 SM엔터테인먼트에 보아의 영상자료를 요청하고 한국 공연 무대에 그를 초청한 것. '번 더 플로어'는 세계 스포츠댄스 선수권대회 우승자 36명이 갖가지 춤을 선보이는 2막7장의 오픈버서식스댄스 공연이다.

'골프 황제' 우즈, 카레이싱 실력도 최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깜짝 출전'한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타고난 승부욕을 뽐냈다. 우즈는 2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남쪽에 위치한 헨틀리에서 열린 유명 인사 자동차 경주 대회에 출전, 두 번째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우즈가 팀에서 맡은 역할은 다른 팀의 자동차가 추월해 앞서나가는 것을 막는 '블로커'였다.

400m 트랙을 12바퀴 도는 2차 경주에서 우즈의 팀은 여섯 번째 바퀴에서 선두에 오르는데 성공했고 우즈의 차는 세 번째 바퀴를 도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결국 팀의 우승에 한 몫을 해냈다.

김태영·임은주 월드컵축구 해설가로



MBC는 2002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김태영(위)과 국내 첫 여성국제심판 출신인 임은주(아래) 씨를 2006 독일월드컵 해설가로 영입했다. 1995년 전남 드래곤즈 프로축구단에 입단한 김태영은 지난해 11월 11년간의 프로선수 생활을 접고 은퇴한 뒤 지난 1월 관동대학교 축구부 코치로 임명됐다. 역시 지난해 현역 은퇴를 선언한 임은주씨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심판위원회 위원 등 4개 보직을 맡고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선임되는 등 국제 축구 행정가의 길로 들어섰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선희 동포 위문



本社 서민정 기자 사막 취재차 출국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흥석)는 25일 목표로 원에 입원, 치료중인 조선희 동포 이용준씨(53)를 방문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쾌유를 빌었다.

본사 사회1부 서민정(사진) 기자가 이스라엘의 사막과 사막연구소를 구상 중인 등 취재차 24일 출국했다. 서 기자는 프랑스 파리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벤구리온 대학 부설 사막연구소 등을 취재한 뒤 다음달 3일 귀국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학측**
- ▲정재춘(주) 디엠 대표이사)씨 장남 은호(공인회계사)군 백창현(삼일회계법인 호남본부장·부대표)씨 장녀 은경(공인회계사)양=29일(토) 오후 4시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유일광(보건대 교수)씨 차남 경완군 안정근(전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씨 차녀 지성양=29일(토) 오후 1시 백운동 서남교회.
 - ▲이재현(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씨 차남 동훈군 서진철(금호고속 부사장)씨 장녀 지연양=29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김영순(전 광주보문고 교장)씨 아들 대행(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군 박병준(전 전남도립남도대 학장)씨 딸 서정(대학강사)양=29일(토) 낮 12시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홀.
 - ▲김재성(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소장)씨 장남 희민군 박중민씨 장녀 선하양=30일(일) 오후 1시50분 농성동 상목회관 3층 장미홀. 피로연 28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 영암휴게소 2층 연회장.
-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 32회 동창회(회장 정영대) 월례회=26일(수) 오후 7시 등촌. 373-1566
 - ▲복성중 제 26회 동창회(회장 김수완) 월례회=26일(수) 오후 7시 농성동 매일세꼬시.
 - ▲함평 월야중 제 27회 동창회(회장 김태훈) 은사님 초청 모임=29일(토) 오후 6시30분 광산구 우산동 클럽버스 웨딩홀 2층 아모르홀.

■여섯자녀 美 명문 예일·하버드대 졸업 전혜성 박사의 황당한(?) 조언

“남의 아이 챙길 때 내 아이도 최고 되죠”

“자신의 아이만 잘 되기를 바란다”고 아이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봉사 활동도 하면서 자녀를 사회를 위해 남의 아이를 위해 일할 때 내 아이를 최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씨는 “그 당시 독자들이 보내주었던 뜨거운 호응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그분들의 고마운 관심에 일일이 답하는 마음으로 자식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며 “부모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자식 한 명도 뒤처지지 않기 바쁜 세상에 남의 아이까지 챙겨야 아이들이 잘 된다는 ‘황당한 조언’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전씨가 책 전권을 통해 일관되게 전하는 것은 ‘오센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우

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덕목은 ‘덕승재(德勝才· 덕이 재주를 앞선다)’. “아이들을 최고로 기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기는 것만 목적인 교육은 엄마·아이 모두 고생 아이들 하고 싶은 것 찾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

장남 예일대 졸업(고경주·현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장녀 하버드대 졸업(경신·현 중앙대 화학과 교수), 차남 하버드대 졸업(동주·의학·철학박사), 삼남 하버드대 졸업(홍주·현 예일대 로스쿨 학장), 차녀 하버드대 졸업(경은·현 예일대 로스쿨 석좌 임상교수), 막내 하버드대 졸업(정주·미술가)...

리탈로는 ‘진정함 리더십’ 혹은 ‘독창적 리더십’ 등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그에 따르면 ‘개인의 창조적 독창성이 강조된 리더십’이다. 그가 제시한 ‘오센틱 리더십’의 덕목은 모두 7가지. 그 첫번째가 ‘뚜렷한 목적과 열정’이다. “저보고 아이를 잘 기르시길 바랄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때 저는 ‘당신은 어떤 아이를 기르고 싶어하는데요?’하고 묻는다”며 “아이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는 것만 목적인 교육은 엄마도 고생, 아이도 고생이다”고 말했다.

재주를 빼내지 않도록 교육해왔다”는 전씨는 “인간성이 결여된 엘리트 주의는 절대로 아이를 사회의 리더로 키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센틱 리더십은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요약한 그는 “남을 돕고 베푸는 과정에서 아이 자신이 오히려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50여년이 넘게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와 아울러 그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 ‘현신’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한다. 그는 “부모가 자신의 일을 접고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된다”



며 “부모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도 열심히 자란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내 조기유학 열풍에 대해서도 그는 “단지 공부를 위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위험하고 교육에도 좋지 않다”며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부부가 자식 공부를 위해 떨어져 사는 것도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디킨슨대에서 경제학·사회학을 전공하고 보스턴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예일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전씨는 지난 85년부터 한국연구소(남원) 고광남 박사가 설립한 지식인 네트워크를 계승한 ‘동양문화연구소’를 뉴헤이븐에 창설,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가 잘 사는 나라를 보고 우리도 한 번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썼다면, 이제 시작하는 시리즈는 관심 없었던, 못 사는 나라들을 보고 세계사를 똑바로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나라 이웃나라’라는 교양만화를 통해 국내 독자들에게 세계를 향한 창을 열어주었던 이원복(60·덕성여대 산악미술학과) 교수가 ‘만나라 이웃나라’의 후편 성격의 ‘가로세로 세계사’(김영사 펴냄) 시리즈를 선보였다. 지난해 1월 ‘만나라 이웃나라’를 모두 12권으로 완간한 뒤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대장정의 깃발을 올린 셈이다. ‘만나라’ 시리즈가 미국·일본·서유

럽 등의 잘 사는 나라·강력한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새 시리즈는 동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가난하고 뒤쳐진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교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선진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여야 한다”면서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세계를 품어 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국민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의에 대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 이 교수는 “민족(nation)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는 핏줄이 아닌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핏줄 개념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며 “(‘붉은악마’ 응원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서 보이는) 국내에서의 민족주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편적이고 막연하게 알았던 나라들을 구체화하고 종합해준 것이 ‘만나라’의 장점”이라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도 정확하고 생생한 내용으로 독자들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만나라’ 시리즈는 모두 1천만 권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못사는 나라 보고 세계사 똑바로 봐야”

‘만나라’ 후속 ‘가로세로 세계사’ 펴낸 이원복 교수

제목이 ‘세계사’라고 해서 역사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 방식도 국가별로 접근했던 ‘만나라’와는 달리지역적 개념을 동원해 테마별로 묶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1권 ‘발칸반도 강인한 민족들의 땅’의 중심 테마는 민족주의, 그리스·루마니아·불가리아 등 발칸지역 국가들의 역사와 민족문제를 다뤘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의 민족

영관 쓴 볼독 ‘가장 아름다운 볼독’ 선발대회에서 최우수 견(犬)으로 뽑힌 영관을 쓰고 앉아 있는 하니(Hannah).

난치병 어린이 소원안고 에베레스트로

산악인 박영석씨 ‘희망 원정대’ 산악인 박영석(43)씨가 세계 최고 봉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천848m)에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이 적힌 깃발을 꽂는다. SBS는 박씨와 만화가 허영만(57)씨로 구성된 ‘희망 원정대’가 어린이날인 내달 5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난치병 어린이 24명의 소원을 담은 깃발을 꽂는 과정을 위성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16명의 원정대와 함께 지난달 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횡단 등반길에 올랐으며 출국 이전에 회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24명을 직접 만나 각자의 소원을 깃발에 담았다. 깃발에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절대 안 죽고 싶어요” 등 아이들의 가슴 찡한 소원이 적혔다.

- 언론인 이 이상하씨 추모식**
- 언론인 이 이상하씨의 1주기 추모식 겸 유고집 출간기념회가 27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씨는 1964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편집부국장 등을 역임했고 13대 국회의원과 한국프레스센터(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및 무등일보 회장을 지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유고집 ‘사람을 물고 다니는 유쾌한 사람’이 증명된다.
- 3·1운동 보각 스님 입적**
- 1919년 이화학당 시절 친구인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운동을 했던 경기 남양주 통일정사 보각 스님이 24일 새벽 입적했다. 세수 103세, 법랍 49세. 이화학당을 졸업한 보각 스님은 출가 이전 1919년 친구 유관순 열사와 3·1운동에 참가했으며, 출가 이전에는 국방부인회회장, 불교부인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영관 쓴 볼독 ‘가장 아름다운 볼독’ 선발대회에서 최우수 견(犬)으로 뽑힌 영관을 쓰고 앉아 있는 하니(Hannah).

평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길목특별방
 ☎ (062) 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복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진)
 대표: (062) 515-4488